

“행복꾸러미로 사랑을 전해요”

전주 Wee센터, 마음방역 지원 프로그램 고위험군 학생에 정서적 위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에 지쳤는데 행복꾸러미를 받고 하나씩 뜯어볼 때마다 너무 설레었고 감동했어요.”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영민) 위(Wee)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음방역 지원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전주Wee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70여 명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방역물품 등을 전달했다.

전주Wee센터 상담(교)사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인 1조로 각 가정을 방문해 행복꾸러미를 전달하면서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상담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학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고위험군 학생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음방역 행복꾸러미’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물품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간식류, 보드게임, 동화책, 풍나물 키우기, 물고기 키우기,

클레이, DIY 만들기 등 다양한 구성품을 한 데 모았다. 또 마음을 위로하고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뉴스레터도 담았다.

특히 그동안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을 진행하며 파악한 학생들의 심리상태나 취향, 학년에 맞춰 학생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전주교육지원청 위센터 오승남 실장은 “코로나19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곁에 있다,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심리

적 안정과 위로를 주기 위해 마음방역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면서 “휴업이 길어지고, 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에 맞는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개학 연기가 결정된 이후 즉각적으로 학생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학군별로 나눠 PC방·당구장·공원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시설을 방문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학생 발견시에는 관련 정보를 담임교사 및 학교와 공유해 학교 안에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여중 김효정 학생 ‘2020 희망대상’ 수상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주)은 지난 10일 ‘2020 희망대상’을 수상한 김제여중 김효정 학생(사친)에게 상을 전수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타의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여되는 상으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김제여중 김효정 학생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정대주 교육장은 이 자리에서 장래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김효정 학생에게 “2020 희망대상 수상을 계기로 자부심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꿈을 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 것”을 당부했다.

김효정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김제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른으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했다.

한편, 김제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중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로부터 심리적 방벽이 필요해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내방상담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엠커뮤니케이션(대표 장영훈)은 전북대학교 학생 교육에 써달라며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현재 전북대 예술교육커플링사업단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장 대표는 예술교육커플링사업단 학생들을 위해 지정 기탁했다.

“대학 경쟁력 향상 · 예술영재 발굴 위해 써달라”

엠커뮤니케이션, 전북대 발전 기금 1억원 쾌척

㈜엠커뮤니케이션(대표 장영훈)은 전북대학교 학생 교육에 써달라며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엠커뮤니케이션은 전주 본사 이외에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정읍 등 5개 지사를 둔 전라북도 MICE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제 행사 유치(PCO) 또는 행사대행, 디자인컨설팅, 관광산업, 6차산업 농생명 컨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다.

현재 전북대 예술교육커플링사업단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장 대표는 대학경쟁력 향상은 물론 예술영재 발굴과 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예술교육커플링사업단 학생들을 위해 지정 기탁했다.

특히 장 대표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구에도 도움을 주

기 위해 한반도평화연구소에도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했다.

김동원 총장은 지난 10일 장영훈 대표를 초청해 감사패 등을 전달하며 기탁자의 고귀한 마음에 감사를 표했다.

장 대표는 “전북대와 오랜 인연을 맺으면서 평소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뜻을 펼 수 있어 기쁘다”며 “전북대가 ‘알찬 대학, 따뜻하게 동행’하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인1종목 체육환경 조성”

양심목 남원시체육회장, 지리산권 스포츠복지도시 공약



“남원을 지리산권 중심의 스포츠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초대 민간 남원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양심목 회장은 ‘체육으로 하나되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양 회장은 지리산권 스포츠 종합훈련원 설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광레포츠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국제·전국대회 유치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남원시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지리산권 종합훈련원 설립에 적극 나섰다.

양 회장은 “지리산지역은 백두대간에 둘러싸인 전지훈련 최적지로

서 선수들의 심폐기능 및 지구력 강화 등 경기력 향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충지다”며 “종합훈련원이 조성되면 선수들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양 회장은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에도 언급했다.

그는 “스포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지리산고원지대(산악), 요천강(수상) 등 남원시가 갖고 있는 뛰어난 관광자원과 연계한 창의적인 레저스포츠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회장은 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주변 확대에 적극적이다.

그는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직원들에게 자기 개발을 주문하고, 포체계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진흥팀과 생활체육운영팀, 홍보마케팅팀 등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함치게 추진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1인1종목을 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이백초, 찾아가는 원격수업

각 학년 담임교사들 직접 가정 방문 온라인수업 등 점검



남원 이백초등학교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각 학년 담임교사들이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 이백초등학교(교장 이경희)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각 학년 담임교사들이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가정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이백초 학생 45명 전체를 대상으로 학년 교사들이 직접 가정을 찾아 건강상태 점검과 온라인학습에 따른 컴퓨터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 스스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학교에서 준비한 학습준비물을 전달하고, 학부모들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걱정도 해소시켜 줬다.

이경희 교장은 “이백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학생 모두의 건강과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